

# 정면돌파 ‘직진형’ 리더십… 소통·타협 등 유연성 아쉬워

##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26년 검사 생활 후 작년 정치 입문 10개월 여 만에 대통령 취임까지

집무실 용산이전 등 정면돌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갈등 논란도 여론수렴·협의 등 ‘소통’ 필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진형’으로 볼 수 있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6월 29일 출마선언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0개월여만에 대통령 취임까지 성공한 것은 그만의 뚝심과 결단력 등에 바탕한 직진형 리더십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뚝심 있게 자기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뒤 경선 참여 선언부터,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며 일 처리를 했다.

20대 대통령선 거막바지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 협의를 이뤄낸 것도 윤 대통령의 과감하면서도 진솔한 언어로 완성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 정면돌파하는 ‘큰 형님’ 스타일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면 돌파 방식으로 풀어갔다.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 연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스

에도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다. 국민에게 집무실 이전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에 대해 듣는 과정이나 여론 수렴도 사실상 없었다.

집무실 이전에 협조가 필수인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와 협의도 없었다. 청와대 개방 문제 또한 당시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의 없이 결정돼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과정에 협의의 없이 직진한 채 결정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충돌했고, 이는 신구(新舊) 권리 갈등 논란으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소통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미흡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맞이 한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원칙에 대해 고수하는 직진형 리더십이나 형님 스타일은 자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정 부분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특유의 리더십을 자체하면서 고도의 정치력까지 발휘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거나, 여야 대표 회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여론은 팽팽했다. 결정은 하되, 시간을 두고 이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 여론 가운데 윤 대통령 결정은 취임 후 ‘용산 시대’ 공식화였다.

용산 시대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당시 “시기를 조금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며 자신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 물러나기 전까지 26년간 검사로 살면서 특유의 ‘형님’ 리더십도 보였다. 이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고스란히 이

어졌다. 겸찰 시절에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내 사람’을 챙겨왔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다.

한번 사람을 밟고 맡기면 쉽게 내치지 않는 특유의 형님 리더십은 대선 경선 기간부터 본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까지 이어졌다. 윤핵관 만행격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겸찰 내핵심 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각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일정도 챙기는 부속실장도 20여 년간 인연인 강의구 전 겸찰총장 비서관이다.

윤 대통령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형님 리더십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특별고문이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등이 공천받고 경선 끝에 후보로 낙점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 원칙 고수하다보니 ‘소통 외면’ 지적도

하지만 윤 대통령 특유의 ‘직진’, ‘형님’ 리더십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과 약 열흘 만에 있었던 큰 결정이었음

## 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서명

### 尹 대통령 ‘1호 안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인준절차 거쳐 기재부 등 7개부처 장관 임명문서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인선 대변인,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서명은 현재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전문 인사’ 등을 이유로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총리는 한덕수뿐”이라고 힘을 실은 바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총리 인준이 불발될 경우 ‘당분간 총리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최종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제를 위한 첫 단추인 만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직, 차관 등 임명 문서에도 서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대기 비서실장.

/뉴스

## 美 증시 급락에 코스피 2600 붕괴… 단기바닥 근접?

장중 중국 증시 상승에 낙폭 축소 세계 경기둔화에 2400선 전망도

코스피지수 2600선이 깨졌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2% 이상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중국 증시와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 영향으로 낙폭이 축소됐다. 개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가 24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연저점 기록을 볼 때 단기적인 바

닥에 균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4.25포인트(0.55%) 하락한 2596.56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50포인트 이상 급락했지만 낙폭을 줄였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2857억원, 기관은 6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17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1.46%), 음식료업(0.73%), 의료정밀(0.49%) 등이 상승했고, 보험(-1.63%), 금융업(-1.52%), 운수창고(-1.43%)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2.33%), 네이버(0.36%), 삼성SDI(0.34%) 등이 상승했고, 삼성전자(-0.61%), LG화학(-0.60%)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62개, 하락 종목은 614개, 보합 종목은 52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4.70포인트(0.55%) 하락한 856.14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200억원, 외국인은 523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757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서비스(1.10%), 음식료업체(0.79%), 기타제조(0.78%) 등

이 상승했고, 소프트웨어(-1.78%), 금융(-1.77%), 출판매체(-1.59%)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35개, 하락 종목은 947개, 보합 종목은 90개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 바닥에 균접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10년 9월 이후 단 한차례도 이탈적이 없었던 20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만700선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상·하단 범위가 넓어진 볼린저밴드 하단 지선이 위치한 1만1200선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할 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0원 오른 1274.7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277.9원까지 올라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